



언론계에서 듣는다.

축산신보편집부
이 광 사 국 장

外國産 畜産物의 輸入개방에다 소위 UR (우루과이 라운드)파문으로 全畜産業界와 畜産物加工業界는 위기감을 넘어 허탈감에 휩싸여 있는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더욱이 양축농민들은 「이제는 家畜기르는 일」은 끝장났다는 자포자기의 허탈감이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이로인해 축산기반이 붕괴될 우려마저 야기되고 있어 政府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마련되지 않는한 그렇지않아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畜産業은 그 존립성마저 흔들리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무리한 예측은 아니리라 여겨진다. 더욱이 養畜人들은 그동안 畜産物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많은 양축農民들이 가축기르는 일을 포기한데다 설상가상으로 政府의 축산정책 지원의 미비로 비전없는 축산업에 회의감을 느끼고 일찌감치 손을 댄 현실임을 감안할때 우리가 그간 자주사용해 왔던 畜産發展이란 용어는 허공에 메아리로밖에 들렸지않았느냐 라는것이 작금의 우리 畜産業界의 실정이라고 말할수있다. 이러한 우리축산업계의 현실앞에 또다시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엄청난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 실

정이여서 우리 축산업은 옆친데 덮친격이 되고있어 축산업 붕괴의 시기를 재촉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많은 畜産人들은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 라는 국제기류에 대비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지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 막상 이 제도의 실시가 가시화되고있는 시점인 오늘에서야 상황을 알리는 관계당국의 무책임한듯한 자세에 실랄한 비판과 함께 다소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에대한 적극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보다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국민의 그릇된 소비의식이라고 할수있다. 그것은 우리국민들이 국내산 畜産物보다 수입 農畜産物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데에서 국민의 식의 모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 예로 품질면에서는 수입치즈나 수입버터가 국내산 치즈나 버터보다 못한데도 무조건 외제를 선호하는 사실만 비추어봐도 우루과이 라운드 보다 더 무서운것은 가격은 비싸든 싸든 무조건 외제를 선호하는 우리국민의 의식구조와 소비유통의 모순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우리 畜産人들은 現實的으로

나타난 재양(?)인 우루과이 라운드에만 두려워하고 염려할뿐이지 우리 내부적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는 눈을 돌리려하고있지 않다는 데서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아무튼 우리 축산인들은 무조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일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현실감있는 자세로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주축이 되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때라고 생각된다. 더우기 우루과이 협상이 가시화 된 현실점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한숨만 쉬고 눈만 부릅뜨고 원망만 할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모든 생산가공비등을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배양하여 살아남을수 있는 슬기를 찾도록 하는것이 급선무일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政府가 축산분야에 얼마만큼의 과감한 투자가 있도록 유도해 내야하는 것도 현실적인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여겨지나 과연 이 과제를 어느누가 풀어나가느냐 하는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농업은 제반여건의 모순등으로 최악의 위기에까지 직면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가격및유통 그리고 생산 정책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간 문제점이 發生할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해온 정책당국과 기업이윤에만 집착해온 유업체, 그리고 現在의 비탄력적인 유가체계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보여온 생산 농가의 안일한 사고에도 기인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이 시점에서 국내 낙농업이 안고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1985年 7月 이후 수입이 자유화된 코코아분유의 수입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유 함량이 40%이상 90%로 품목분류상 코코아 분유로 분류되고 있으나 사실상 유제품으로써 지난번 國內乳加工 市場에서 경영압박에 커다란 요인으로 지적된바도 있다. 그래서 乳

加工協會는 급기야 産業피해 구제신청까지도 제기한바 있는데 코코아분유의 수입자유화는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의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內題로 輸入제한 품목으로서의 환원 내지의 현재 10%의 관세율의 재조정이 반드시 실현돼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또 아직은 수입개방에서 제외된 유제품 가운데서도 치즈의 경우 89년도에 60만달러어치가 수입 되었는데 이외에도 국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산 치즈까지 합친다면 외국산 치즈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치즈시장 점유율은 25%가 넘는다는 셈이 되고있으며 이는 금년 상반기와 같은 원유재고로 인한 국내 유가공업계의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볼때 심각한 內題가 아닐수 없다고 하겠다.

버터의 경우에도 지난 89년도에 96만달러어치가 輸入되어 88년도에 비해 무려 3배가량이 늘어난것으로 밝혀졌는데 역시 국내 원유적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외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輸入한 낙농제품은 약 2천만달러어치로 지난 88년도에 비해 자그만치 21.8%가 늘어난 실정이라고 한다. 이가운데 유장분말이 전체 낙농제품 輸入의 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 대부분이 프랑스와 스위스 덴마크 미국 등 선진강대국으로 알려졌는데 이 유장분말의 지난해 수입액은 1천3백16만달러이며 단지분유의 경우에는 지난 88년도에 1백20만달러어치가 수입됐고 탈지분유가 90%가량이나 함유된 코코아분유는 같은해에 6백18만 달러가 수입된 점을 감안할때 탈지분유의 실제 수입량은 7백만달러에 이른다고 봐야 할것이다. 이같이 국내의 낙농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해결을 위한 구심점을 찾지못하고 있는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어쨌든 오늘의 낙농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낙농업이 지니고 있는 제반 여건과 특성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책과 개입을 통해 현

실적 난제를 해결할수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현실화되고있는 현실점에서는 1차적으로 현재 입법에고중인 낙진법(案)의 시행령부터 현실에 맞게 다듬어 현실적으로 수용할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조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 생산자와 유가공업계에서도 양자의 관계가 보완관계임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을 통해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우려야 할것이다. 현재 국제유시장의 동향등을 들어보면 지난80년대에 과잉생산으로 80년대 중반 경에는 생산을 조정해오다 지난 88년도 이후 생산량을 증대해 온 실정임을 감안해 불매 유제품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은 그만큼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할수있겠다. 어쨌든 우리 지구촌에서의 축산없는 나라는 있을수 없고 축산업이 존재하는 한 낙농업의 보호는 우선되어야 한 부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때 설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유제품 시장의 완전 개방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설령 부족량만 최소한으로 도입한다 해도 이는 不足分을 전제로한 돌이킬수 없는 함정수입이 될수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不足分을 도입한다는 미봉책 자체가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 보다 더 무서운 우리 축산업 자체내의 적인 것임을 감안할때 우리 축산인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만을 놓고 무서워할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 모순점을 더 먼저 도려내야 하는데도 내부

의 모순점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같은 현실앞에 우리는 한숨만 쉬고있을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을수 있는 방안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이를 과감히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우리의 잘못된 자체 구조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될것이다. 우리와 제일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본도 지난 88년2월에 유제품의 완전개방 압력을 유보시켰다는 점등을 상기하여 우리도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 우리 축산인들이 자국내에서 반대를 한다해도 강대국들의 입을 틀어막기에는 불가항력적인 입장에 놓이고 말았다. 농림수산부도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가 우리 축산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원정책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색을 지니고 있는것 같은 느낌이다. 가격안정대및 수매비축제 장단기 저리 영농자금지원, 차액보상등이 불가피하게 축소될것이며 동시에 수입제한 품목의 자유화 및 관세전환의 어려움도 감수해야 할수밖에 없다는 주장이고 보면 경제력이 취약한 우리 낙농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것이 자명한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있다. 어쨌든 축산업은 지구촌이 존재하는한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그에대한 새로운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그같은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학계 언론계 등 전국적인 인식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모자라는 칼슘, 우유로 보충합시다!